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서로 되기’의 가능성:*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의 예에서

이소영**

국문요약

재현의 권력 역학과 타자화의 위험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다수가 고민해온 문제일 것이다. 김이숙의 단편소설 『관객』이 짚어내었듯, 윤리적 성찰에 기인한 연구자의 부끄러움마저 연구대상에게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할 수 있는 자의 ‘권력’으로 감각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카메라 이편-저편 사이를 횡단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수행 과제일 테지만 연구대상은 저편의 세계로 건너갈 길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본고에선 분단구조 속에서 북조선 여성들의 다성적 목소리를 담아낸 사회학자 김성경의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가 어떻게 소설적 상상력을 부가한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 살핀다. 저자는 서두에서 남한 출신 연구자인 자신이 북조선 여성을 타자화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온전히 해결하거나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적시했다. 공감의 강박을 버린 저자는 북조선 여성들의 회고록과 자서전에 대한 세심한 독해와 긴 시간에 걸쳐 수행해온 인류학적 작업을 통해 ‘가장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연구대상이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타자 되기’의 상상력을 덧입혀 이를 재구성했다. 또한 자아문화기술지 형태를 취한 마지막 장에선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서로 되기’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제어: 다큐멘터리 산문, 자아문화기술지, 부끄러움의 감각, 타자윤리, 연대

* 수정·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에 관해 상세히 논평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제주대 사회교육과 부교수. postsoyoung@jejunu.ac.kr

I. 부끄러움의 윤리와 부끄러움의 권력

별산동 철거 지역 연구는 젊은 사회학자 테라장이 조교수로 임용된 후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다. 테라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병행하는데, 전공 수업에 활용할 ‘가난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했던 데다 도심에 얼마 남지 않은 달동네를 영상으로 기록해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별산동 놀이터 아이들을 수일에 걸쳐 관찰한 후 여섯 살 된 누리네 가족을 사례 가족으로 선정한다. 삼년 동안 촬영한 다큐멘터리 <별산동 프로젝트>는 독립영화계에서 유명해지고, 사례를 섬세하게 발굴하여 분석한 걸 넘어 도시빈민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자의 곤혹스러움마저 진솔하게 드러낸 작품이라 호평을 받는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일화들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읽힌다. 이 일련의 과정은 그렇다면 연구대상이던 누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신인작가 김이숲의 단편 「관객」¹⁾은 이렇듯 연구자-연구대상, 혹은 카메라 이편-저편 사이의 권력 역학과 재현의 윤리에 대해 질문한다(노대원 2023, 201).

작중 테라장은 예민한 윤리 감각을 지닌 연구자로 그려진다. 그는 연구대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갈등하고,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누리네 가족을 조력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의 질문방식이 연구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나 질문할 때의 어조와 표정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 관객 스스로 판단하게끔 한다. 그는 지자체가 작품명을 탄 이른바 ‘빈곤 체험 부스’를 제작하자 철거를 강경히 요청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누리네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언급한다. “영상 작업을 시작하고 저는 조교수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가 되었지만 제가 찍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제가 영화로 담아낸 현실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김이숲 2023, 169)라고, 감독상을 수상하며 술회한다.

그렇지만 누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기 존재가 누군가의 괴로움이고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낀다. 자신의 유년기 기억 안에 즐거운 장면

1) 이 작품은 제12회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며, 『자음과모음』 53(2022년 봄호)에 처음 게재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현대소설학회(편), 『2023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 2023에 수록된 버전을 참고·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들로 각인되어 있던, 테라장과 함께 했던 순간들에 가난의 기록이란 프레임이 씌워진 채 일방적으로 해석되어도 항거할 방도가 없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누리를 알게 된 이들이 “뭘 자꾸 주면서 더 달라고 하면 염치를 모르는 거”(김이술 2023, 170)라는 호의적이면서 동시에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면 부끄러웠고,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입을 다물어 왔다. 이렇듯 자신에게 “부끄러움은 숨기고 싶은 것이었는데 테라장은 무대에 서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에서 어떻게”(김이술 2023, 171)라 그는 생각한다. 연구자의 부끄러움은 윤리적 성찰에서 나온 일종의 죄책감이겠지만 연구대상의 부끄러움은 수치심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차이로 인해 연구대상은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권력’으로 감각하게 된다.

이 소설의 몇몇 장면에서는 사당동 재개발 철거민 가족을 장기간 밀착 관찰·기록한 “사당동 더하기” 시리즈가 겹쳐 보인다.²⁾ 누리를 만나는 날 아침 테라장이 ‘신뢰감을 주면서도 경계심은 느껴지지 않을’ 옷차림을 골랐듯, 사당동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도 “잘못하면 복부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부유한 아줌마’ 티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허술해 보여서도 안 되며 연구자처럼 보이지만 동네 바깥 사람으로 금방 눈에 띄어서도 안 될 것 같아 수수한 옷차림에 필기도구를 담은 가방을”(조은 2013, 13) 챙겼다고 회상한다. 이 내용이 기술된 챕터 제목은 “두 세계를 오가다”이며 하위 챕터 제목은 “밑으로부터 사회학하기”이다. 카메라 이편-저편의 두 세계를 횡단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일 테지만 연구대상은 저편의 세계로 건너갈 길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연구대상의 목소리가 ‘밑’으로 ‘내려온’ 연구자를 경유해 발화되는 위계성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다수가 고민해온 문제일 것이다.

소설 속 대학생 멘토는 누리가 ‘가난의 냄새’란 말이 싫었다고 하자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어들이 있어. 그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김이술 2023, 171)라 설명한다. 우리에게 현실을 잘 보여주는 보고서 같은 작품이 필요하

2) 사회학자 조은 교수는 1986년 재개발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사당동에 들어간 이래 한 가족을 선정하여 장기간 동안 빈곤의 대물림을 관찰해왔다. 이는 다큐멘터리 『사당동 더하기 22』와 『사당동 더하기 33』, 그리고 단행본 『사당동 더하기 25』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다고도 이야기한다. 그 ‘우리’ 안에 본인 또한 포함될지 의문을 품은 누리는, 이번엔 역으로 자신이 테라장을 관찰·촬영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위치 바꾸기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해 출간된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에서 사회학자 김성경이 시도한 것이 그러한 위치 바꾸기이다. 페미니스트 입장이론과 탈식민주의 문화연구를 토대로 “분단 문제를 국가가 아닌 사람들의 수준에서 접근”(김성경 2023, 234)하여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북조선 여성들의 다성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소설적 상상력을 부가한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또한 연구대상에 연구자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북조선 여성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치는 대신 그들과 자신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기록했다(장영은 2023, 576).

II. 소설적 글쓰기와 연구대상 되기

빈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관객」의 작중인물과 달리, 김성경의 연구대상은 조·중 접경지역의 북조선 여성과 조선족 여성, 그리고 조선적 자이니찌와 재일 탈북여성이다. 이들은 식민, 젠더, 계급구조가 상호 교차하여 구축한 매트릭스의 최하위에 위치한 존재로 규정된다(김성경 2023, 235). ‘노동자는 평등하다’는 당위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철저히 젠더화되어 작동했으며, 그 구조가 북조선 여성들을 이동하는 주체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서두에서 남한 출신 연구 참여자인 자신이 북조선 여성을 타자화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온전히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들을 글쓰기를 통해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위치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 한다. ‘다큐멘터리 산문’이라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형식을 선택한 저자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써내려간다(Denzin 1997, 36).

이 책은 북조선 여성들과의 인터뷰 도중 포착된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되, 구술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서술은 피한다. 저자가 집필 과정에서 영향 받았음을 명시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Svetlana 2015)

와 『랭스로 되돌아가다』(Didier 2021),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홍명교 2021) 외에도, 중국 문화대혁명 피해자들의 증언을 ‘문화반사소설’로 재구성하여 엮어낸 『백 사람의 십년』(평지차이 2002)을 상기시킨다. 인터뷰어들의 삶을 묘사하고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마주 앉은 인터뷰어의 감정적 요동을 들여다보는 데까지 서술을 확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발 내 경험담을 무슨 희한한 이야기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불운과 불행, 고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데 이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지식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평지차이 2002, 123)라는 취지의 호소에 귀 기울인 듯 저자는 분단 문제를 국가나 체제가 아닌 개개의 구성원 수준에서 접근한다. 북조선 매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여성 노동영웅이나 남한 매체에서 그려내는 탈북여성 양편 어디에도 오롯이 포섭되지 않을 이들이 어떻게 중층적 억압과 고통에 대응해왔는지 들여다본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북조선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에선 이미 알려진 북조선 여성 서사들을 소설적 상상력을 더하여 재구성했다. 1부는 다시 세 개의 장으로 구분되며, 각 장은 수기나 소설, 영화, 심층면접 등을 참고하여 창작해낸 주인공들의 삶을 묘사하고 국가의 공적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경험이나 감정을 생생하게 담았다(김민지 2023, 432). 한편 2부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에서는 저자가 그간 연길과 오오사까 등 연구 현장에서 만나 온 여성들과의 일화를 기술했다. 북조선 이주여성들과 조선족 여성 사이의 연대, 입주가정부 일자리 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젠더 위계에 따른 폭력, 가족을 북조선에 두고 온 여성의 회한과 양가감정 등의 에피소드에 인터뷰어로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덧붙여 술회한다.

1-2부까지 읽었을 때 일었던 일차적 질문은 식민과 분단의 중층적 역사성을 내재한 북조선 여성들의 젠더적 위치성을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해온 저자의 문제의식이 연구대상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어떻게 개입되었을지 하는 것이었다. 가령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1961)의 저자 길확실의 삶을 재구성한 1장은 ‘천리마 시대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북조선 여성 노동자’라는 공적 서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길건실’의 속내를 상상하여 들려주는데, 이렇듯 저자가 재해석해낸 인물 또한 대상화

의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테다. 또한 북조선을 떠나 접경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4장에 소개된 일화에서처럼 매순간 연대적 자매애‘만’ 보여 줄 순 없었을 것이며 때때로 내밀한 위계나 갈등·배신,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계산적이어야 했던 순간 등도 존재했을 테다.

“가장 낮은 서열에서 자매애와 가족애를 실천하는 그들은 이미 경쟁적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멸종되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치와 감정을 복원하고 있”(김성경 2023, 239)다는 대항 서사에 가지런히 들어맞지 않는 목소리들과 이야기들이 소거된다면, ‘살아남은 여성’들이 ‘만든’ 세상은 자칫 연구자가 연역적으로 골격 세운 세상이 될 여지가 있다. 저자는 150여 명이 넘는 북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를 작성해오는 과정 중에 이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Ⅲ. 자아문화기술지에서 ‘서로 되기’의 체형

그렇기에 저자는 탐정이라도 되는 듯 충격적인 생활을 탐문하는 것이 그녀들의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리라(김성경 2023, 138)는 회의감에 인터뷰 도중 질의를 그만두기도 하고, 자신에게 북조선 여성을 소개해주지 않으려는 연길 조선족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그녀들이 그 무게를 견뎌내도록 조용히 곁을 내주려”(김성경 2023, 138) 하는 모습 앞에서 인터뷰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이웃에 관해 쓰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공정한 연구자로서 북한 이주민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오만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들을 고백한다(김성경 2023, 237-239). 공감에 대한 강박을 버린 연구자는 북조선 여성들의 회고록·자서전에 대한 세심한 독해와 긴 시간에 걸쳐 수행해온 인류학적 작업에 소설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가장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연구대상이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문화기술지 방식을 통해 ‘자기 연구주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참여 관찰 대상으로부터 무언가 배워가는 스스로를 기록한’(Willis 2000) 3부 「분단, 북조선 여자들, 그리고 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서로

되기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할 만하다. 분단을 긴 시간 동안 직업으로 접근해왔던 저자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의 조건들을 지닌 시어머니를 자기연구와 연결 지을 생각은 미처 못해왔음을 자각하게 된 과정에 관한 서술은 특히 흥미롭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그런 것처럼’ ‘영남 출신이라는 지역주의 때문에’ ‘교회 모임에서 활발하게 오고 가는 SNS 메시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등으로 일반화해온 시어머니의 ‘빨갱이 공포’를, 저자는 스스로 북조선 여성이 되어보는 해체적 글쓰기를 거치며 비로소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이는 타자가 나의 나됨을 심문하며 자기동일성을 뒤흔드는, 레비나스(Levinas)적 의미의 타자윤리가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두터워지는 찰나의 기록으로도 읽힌다(이소영 2021, 123). 북조선 출신자들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떠난 여정 중에 저자는 유학생 시절 본인이 ‘유학 온 아시아인’에 대한 비가시적인 경계를 경험하는 동시에 바로 그 ‘유학 온 아시아인’이어서 한국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경험, 더 나아가 그 자유로움이 아시아인의 정체성과 상호교차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작동했던 경험 등을 복기하게 된다.

말미에 저자는 그간 만나 온 북조선 여성들이 끊임없이 두고 온 남편이나 자식들의 밥 걱정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자녀 곁으로 돌아가 밥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음을 지적한다. 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그것에만 얽매인 채 살지 않는 양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여자들이 만드는 세계는 정착하기 위한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다친 마음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접합지점들일 것이다. 한 그릇 밥의 온기가 허기를 영원히 해결해주지 못하듯 이들의 연대 또한 절대적일 수 없다. 하지만 채워질 수 없는 결여인 ‘완전한 소속감’에 얽매임 없이 이들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이질적이고 다성적인 존재들의 비영속적이며 느슨한 연대라고도 이해될 것이다(이소영 2011, 229).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연대 감정 역시 그러할 테다. 「관객」의 테라장과 누리의 경우에서처럼, 연구자가 고백한 부끄러움이 그와 인터뷰한 북조선 여성에게 특정 지점에선 윤리 아닌 권력으로 체감되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온전히 매워지지 않을 간극을 인정한 채, ‘서로 되기’의 체험을 통해 찰나적 온기를 쌓아가며 느슨한 연대를 구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은 제주대 사회교육과 부교수이다. 법과 사회적 기억에 관심을 두고, 역사부정 규제를 비롯한 '법을 통한 과거청산' 문제와 한국 발전주의 시기 규제·단속의 법사회사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법과 사회 51, 2016),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5.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법과 사회 61, 2019), 「탈냉전시기 유럽의 기억전쟁과 법의 개입」(법학연구 62, 2020)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민지. 2023. “서평: 우리들은 이야기를 만든다”. 『인문논총』 제80권 제2호, 429-440.
- 김성경. 2023.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파주: 창비.
- 김이숲. 2023. “관객.”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2023 올해의 문제소설』. 파주: 푸른사상.
- 노대원. 2023. “작품 해설: 보로로 변기 위에 앉아 생각하는 사람.”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2023 올해의 문제소설』. 파주: 푸른사상.
- 이소영. 2011. “법문학비평과 소수자의 내러티브: 박민규, 윤성희, 김애란의 단편소설에 대한 법문학비평”.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213-240.
- 이소영. 2021.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황정은 소설에 재현된 ‘상처 입을 가능성’에 대한 법문학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5집, 111-146.
- 장영은. 2023. “삶을 교차하는 글쓰기: 김성경,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창비, 2023)”. 『민족문학사연구』 제83권, 573-581.
- 홍명교. 2021.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서울: 빨간소금.
- Alexievich, Svetlana 저. 박은정 역. 2015.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파주: 문학동네.
- Denzin, Norman. 1997. *Interpretive Ethnography: Ethnographic Practice for the 21st Century*. California: Sage.
- Eribon, Didier 저. 이상길 역. 2021. 『랭스로 되돌아가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Feng, Jicai 저. 박현숙 역. 2002. 『백 사람의 십 년』. 서울: 후마니타스.
- Willis, Paul. 2000. *The Ethnographic Imagination*. Cambridge: Polity Press.

Abstract

‘Mutual Becoming’ of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 Subject: In Case of *Women Who Have Survived Make the World*

Lee, Soyoung^{*}

Sometimes a researcher's expression of sense of shame based on ethical reflection may be perceived by the research subject as *power* to express such emotion. While crossing the two worlds may be a task for researchers to carry out through their qualitative research, the road to the other world itself may have been blocked from the beginning to the research subjects. *Survived Women Create the World* takes an original and experimental style of documentary writing. The author, sociologist of South Korea, assumes from the beginning that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resolve or overcome the distance between researcher and the research subject. She seeks to clarify the researcher's limitation by honestly revealing predictable risks in the research process. Only then does the researcher, who has abandoned the possibility of utter empathy, realize that the research subjects, believed to be sustaining the most harsh lives, are creating their own world in their own way.

Key Words: Documentary Writing, Autoethnography, Sense of Shame, Ethics of the Other, Solidarity

논문투고일: 2024. 05. 07.

논문심사일: 2024. 05. 17.

게재확정일: 2024. 05. 27.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ostsoyoung@gmail.com